



‘부산은 문화 불모지가 아닌 문화 소비의 불모지’

부산미술협회 증견작가 정광화 (2024 제32대 임원진 워크숍 대담 일부 발췌)

■ (부산미술복간 100호 특집기고)

부산의 많은 문화인들이 부산을 흔히 문화의 불모지라 말하곤 한다. 이러한 견해는 조금 부산을 잘 모르고 폄하하는 자조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다.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가 아니라 정확히 지적하면 문화적 소비, 문화적 상거래의 불모지라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서울을 비롯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지방의 중심도시, 대구나 광주, 전주, 대전과 같은 도시들은 본래 수백 년 동안 지역의 토착민들이 거주하여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 따라서 각 지역에는 사대부와 같은 양반이나 대자주, 상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객주와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지역은 다른 지역의 중심도시와 역사적인 배경과 성장 과정이 다르다. 지금은 많이 위축되었지만, 부산이 한국 제2의 도



2024 제32대 임원진 워크숍 및 대토론회에서 대담을 하고 있는 증견 정광화 작가와 임원진들.

시로 성장한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된다.

부산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산행코스는 금정산성이다. 금정산성, 동래산성은 왜구들의 조선 땅 노략질을 막기 위한 방어선이다. 금정산성에서 바라보는 현재 부산의 도심지는 구한말까지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었다. 이 산성들은 일본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이다. 즉 산성의 남쪽에 있는 현재 부산 원 도심지는 조선의 양민들이 아닌 천민들과 왜인들이 사는 동네였다. 부산의 명칭은 본래 釜山浦에서 출발했다. 이 명칭이 釜山으로 바뀌었고, 지금의 수정동, 범일동 근처에 일본인들이 거주하였던 일본 왜관이라는 조차지가 있었다. 즉 구

한말까지는 부산은 왜인들이나 일부 천민들이 사는 변두리 조그만 동네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과 거래가 큰 항구는 목포, 군산이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6·25전쟁으로 인해 전국에 있는 많은 피난민이 갑자기 몰려들어 산비탈이나 부둣가 근처에 판자촌이 만들어지며 형성된 도시이다. 수많은 피난민이 운집하니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고 도시는 번창하였지만, 문화적 향유를 하고 문화적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도시였다.

부산에서 6·25전쟁 직후부터 휴전회담까지, 당시 전국의 유명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 나름 문화예술 활동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화상해 보면, 하나같이 먹고살기 힘들던 그 시절 부산의 문화 예술에 대한 기억에는 부산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산에 남아서 정착한 피난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약삭같이 저축하느라 문화나 예술에 눈

을 돌릴 여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당시 부산은 문화적 소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부산에 만석꾼, 천석꾼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문화적 향유와 문화적 소비가 활성화하려면 적든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부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디치 가문처럼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본이 없었고 형성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부산은 6·25 이후 갑자기 생겨나 발전한 도시이며 문화소비의 활성화를 시킬 분위기와 기반이 마련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약 부산을 문화의 불모지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 부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세대정신이나 창조적 예술성이 부족하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대중이나 자본의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그 책임의 많은 부분은 당연히 부산의 문화 예술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부산 지역은 문화 소비의 불모지라는 말로 대체한다면 그 책임은 문화 예술인과 부산 시민 전체가 함께 이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가 아니고 문화 소비의 불모지'라고 말해야 옳을 것 같다.

사)부산미술협회 2024 제3차 이사회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 제32대 제3차 정기 이사회가 지난 5월 24일 오후 6시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63명의 임원 가운데 총 52명이 참석했다.

보고사항으로는 △2024 제12회 '부산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전 결과보고 △2024 제35회 청소년미술캠프 결과보고 △2024 제38회 부산 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공모전'

결과보고 △2024 갈매랑 축제 진행현황 △2024 제33회 부산 자랑 10가지 시민예술제 그림공모전 진행현황 △2024 부산예술지원 매칭펀드(메세나) 선정 결과 △2024 제32대 임원진 및 워크숍 결과보고 △2025 부산갤러리, 금련산 갤러리, 부평아트스페이스 대관공고 △금련산 갤러리 이경희 매니저 퇴직 금지급 결과보고 등이 있었다. 안건으로는 ▲안건1 2024 제

13회 BFAA아트페어 계획안 및 공고, 포스터, 예산안 심의 건 ▲안건2 2024 제44회 부산미술제 계획안 및 공고, 포스터, 예산안, 심의 건 ▲2024 제50회 부산미술대전 계획안 및 공고, 포스터, 예산안 심의 건 ▲제62회 부산예술제 해외자매도시미술 교류전 & 부산미술대전전계획(안) ▲부산미술협회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획위원회 구성의 건 ▲(사)부산미술협회 부산미술대전 운영규정 개정 건 ▲신입회원 인준 및 전과, 탈퇴, 별세회원 건 등이 심의 의결했다.

제50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개최

6월3일부터 원서교부 시작
8월 26일, 서예·문인화 접수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7일까지 개최되는 지역단위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원서 교부가 지난 6월 3일부터 시작됐다. 긴 역사와 권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와 대작 중심의 수상 작품 전시로 구성되는 '부산미술대전'은 부산광역시와 사)부산미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해 부산미술문화의 발전과

역량 있는 신진 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 하고 있다. 올해로 50회를 맞이한 부산미술대전은 접수일 현재 국적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인 미술인들이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판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문인화, 수채화, 민화·불화 총 12개 부문에서 출품이 가능하다.

▲ 1차 작품 사진 접수 △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판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수채화, 민화·불화 10월 24일(목)부터 10월 25일(금)까지

양일간 10시부터 17시까지 부산예술회관 4층에서 접수. ▲ 2차 작품 접수 △서예, 문인화 8월 26일(월) 10시부터 17시까지 부산예술회관 1층에서 접수. △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판화, 수채화, 민화·불화 부문은 11월 10일(일) 10시부터 17시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http://www.bfaa.or.kr>) 협회소식 참조 또는 전화(051-632-2400)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미술협회

제50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11. 18일 - 12. 7일

개막식 11. 22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2024년도 제50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작품공모

공모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40-1 부산문화회관 4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40-1 부산문화회관 4층)

공모기간 : 2024. 6. 3(월) ~ 2024. 10. 25(금) (접수 마감)

공모품목 :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판화, 수채화, 민화·불화, 학술·평론, 영상·설치, 문인화

접수방법 : 1차 작품 사진 접수, 2차 작품 접수

접수처 : 1차 작품 사진 접수: 부산예술회관 4층, 2차 작품 접수: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문의처 : 부산미술협회 (051-632-2400)

2024
GRAND
EXHIBITION
OF BUSAN

'제20회 송혜수 미술상' 구명본 작가 수상기념전

7월16일~21일, 금련산갤러리



서양화가 구명본

송혜수 미술상은 송혜수 작가의 정신을 계승하며 화단에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며 미술 문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미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미술상이다.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해 온 송혜수 미술상은 미술인의 자긍심을 키워주고 화단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를 갖고 있어 한국 미술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올해로 제20회를 맞은 송혜수 미술상 선정 심사가 지난 4월 2일(수) 부산미술협회 사무국과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그 결과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부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pine tree _50,0x65,2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pine tree _80,3x116,7cm, Mixed media on canvas 2024.

한 구명본(서양화) 작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명본 작가는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36회의 개인전, 아시아 컨템포러리 홍콩 아트쇼, 300여회 각 화랑 기획전 및 초대전 출품, 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오늘의 작가상' 본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금껏 구명본 작가는 오래된 사물에 깃든 한국적인 정서와 정체성을 전통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상반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서양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주로 강건하고 투박적이며 자신의 삶을 투영한 소나무를 포착해 회화적 대상으로 표현해 왔다. 소나무 작가로도 알려진 그는 문인화에 영감을 받아 캔버스 위에 오묘장지를 배접하여

유화물감을 입히는 방식으로 새로운 화풍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풍경이 배제된 여백은 사공을 띄어 넘나드는 사유의 공간으로 전환해 정신성과 상징성을 담아내고 있다. 최근 정물화에 집착한 소나무를 품은 달향아리와 다윈, 콜라주 작업을 통해 색을 배제하고 청색과 적색의 단색화 된 작업으로 작품세계의 깊이와 구상적 탐구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또한 야외 사생에서 느낀 자연에 대한 이해와 교감을 바탕으로 작가 자신만의 미학이 담긴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으며, 매년 개인전과 많은 작품 활동에 매진하며 부산미술의 구상 회화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부산 미술의 발전에 기여를 해왔다.

안리 바닷가를 걷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선생님의 화업은 저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며 전업 화가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도 하다. 청년 시절, 한국현대미술 대표 작가 100인전 화집을 보며 화가의 꿈을 키우기도 했다. 송혜수 미술상의 수상자로서 선생님의 작업 정신을 본받아 열정을 갖고 작업에 매진하여 작가의 길을 계속해서 뜻깊게 걸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명본 작가는 "지금부터 10여년 이상의 작업의 절정기이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진행 중인 소나무 연작과 작업을 위해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작품화시켜 이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와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 꿈이라면 작업을 하고 있는 부산 명륜동 이곳에 향후 구명본 미술관을 남겨 보는 꿈을 꾸어본다"며 작품에 대한 의지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늘의 작가상 청년작가상 조각가 이정윤 수상기념전

7월9일~14일, 금련산갤러리



조각가 이정윤

7월 9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제23회 오늘의 작가상 청년작가상을 받은 조각가 이정윤을 작가의 수상기념전이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7월 9일 열린 전시 오픈식에는 사부산미술협회 이사장, 사부산미술협회 고문, 권달술 심사위원장, 선후배 작가, 협회 회원 및 내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년작가상을 받은 이정윤 작가는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 순수미술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미

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부산지역 미술대학에서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대형 전시프로젝트와 개인전 20여 회와 200여 회의 초대그룹전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통해 전국을 누비는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이정윤 작가는 "고향인 부산에서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 지역의 미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품 활동을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 더불어 항상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작업으로 발현할 수 있는 청년작가로서의 기쁨을 잃지 않겠다. 이번 청년작가상 수상 전시 'Liquid Ornaments'를 통해 무엇보다도 변할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는 절

은 에너지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고 수상 및 전시 소감을 전했다. 이정윤 작가는 이번 수상기념전에서 지난 '팬데믹' 기간과 최근 5년간의 작업 결과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매체를 활용한 설치미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거대한 풍선, 유리, 종이 드로잉, 조각 소품, 영상이 함께 어우러져 장르 간 경계 없이 작가의 에너지를 공유하고 시대의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선보인다.

지금껏 이정윤 작가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삶의 과정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을 선보여 왔다. 이러한 영감을 작업에 녹여내고 일상과 삶의 경계에서 많은 대중들과 만나려는 '관계적 노력'을 해온 이정윤 작가는 "작가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이번 수상기념전에 설치할 예정인) 김씨의 자가용, 설치 작품, 2024.



엘씨, 액체고양이 1, 공기조형물, 2024.

예술로서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범블 스튜디오'를 만들고 지역의 아동들,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 예술을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분을 위한 '사회활동'을 이어왔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예술가의 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간에 대한 '다정한 시선'을 유지하고 호기

심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로 살고 싶다"고 전했다. '오늘의 작가상'은 자신의 작업을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탐구하며 독자적인 세계를 수립해 나갈 기회와 장이 되고 있어 많은 지역 작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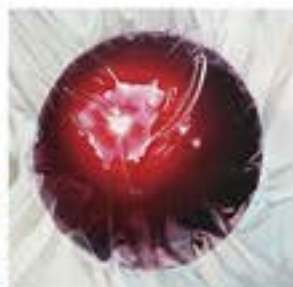
2024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展



이현정, Down the Rabbit Hole _100 x 100 x 100mm, Copper, Brass, mirror, 2024.



이지훈, TIMESLIP-bluehour(festival-광안대교) _97 x 162,2cm, 한지에 채색, 2024.



이지연, Just before emerge 1-1 _100호, Oil on Canvas, 2018.

내년 1월, 최우수작가전
우수작가전 4월30일~5월19일
부평아트스페이스서 릴레이전

부산지역 청년작가들의 축제인 '2024년 제12회 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청년작가展이 열렸다. 사부산미술협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공모 기간을

거쳐 참여한 부산지역 청년 작가들을 선별하여 전시회를 열었다.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작가전은 1부-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한국화, 조각, 판화), 2부-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공예), 3부-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서양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번 전시에는 부산에서 활동하

는 청년작가와 부산 소재 대학교에서 미술 계열을 전공한 만 39세 이하 청년작가 39명이 참여해, 최우수 청년작가에 이현정(공예), 이지훈(한국화), 이지연(서양화) 작가가 선정되었고, 우수청년 작가에는 박상희(한국화), 홍민수(공예), 장생인들(공예), 박중선(서양화) 작가가 선정됐다. 특전으로 본상 수상자 중 박중선(서양화) 작가가 부산문화재

단 공모 라오스 레지던스 팀(13박 14일) 추천작가로 선정됐다. 최우수 작가는 2025년 1월 중 서울인사아트센터 부산갤러리에서 전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우수 작가는 7월 중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릴레이 개인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최우수 청년 작가로 선정된 이현정 작가는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섬유금속전공 학사와 부산대학교 조형학과 금속조형전공 석사를 수료 하였으며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책을 통해 상상의 나라를 펼치던 자신을 떠올린다. 그는 동화 속 후크 선장과 싸우는 피터팬이 되기도 하고, 윈터랜드를 여행하는 엘리스가 되기도 하며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속 상자에 채워 넣으며, 환영적인 꿈의 공간을 창조하고 순수한 심리를 통해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작가의 무의식 속 잠재된 감정들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

공을 졸업한 이지훈 작가는 항해사로 일하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바다와 항구를 배경으로 삶의 흔적이 담긴 도시 속 빠르게 변모하는 건물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직각하게 한다. 변해가는 현실 속에 놓인 인간과 삶에 대한 단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소통하며 조종하고자 한 이작가의 작품 속 '달'은 도시를 바라보는 관찰자이자 각자의 이상향의 세계를 뜻하며, '비행기는 현실과 이상을 오가며 도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전통 재료로 표현했다. 한편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이지연 작가는 내면에 숨겨진 본성이나 욕구가 사회적 위차나 본인의 통제에 의해 자신의 본질을 왜곡해 보일 수밖에 없는 현상을 표현했다.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 기준들로 인해 끊임없이 본성을 억제하며 마찰을 일으키는 현상을 비닐 걸뭉치를 들고 나오려는 ego에 빗대어 그려냈다.

이작기를 25 추억한다

대담/글 : 김성현 (미술평론분과 회장)

✓ 금속 공예 진영섭



진영섭 작가의 작업실은 도삼에서 멀리 떨어진, 작업 과정에 발생하는 소음의 제약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김해평야의 꽃 재배를 하는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작업실 내부에는 각종의 금속을 연마하는 헤아릴 수 없는 공구들로 가득했는데, 그런 분위기 그 자체가 예술인 특별한 환경 속에서, 작가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Q : 진영섭 작가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팽팽이 있는 금속 작품들이다. 금속을 다루는 작업은 고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작품활동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A : 네, 구리 작업을 하다가 50살 즈음에 어깨를 다치고, 앞치마를 댄 척으로 갑상선 암과 임파선 전이까지 겪게 되었죠. 이런 이유로 금속 작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본을 여행하며 요리를 배웠고, 스페인에서는 친구 집에서 요양하며 주방 세프들과 함께 스페인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 기간의 휴식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쁜 일상을 정리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힐링의 시간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 금속을 다루는 망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보이는데, 작업에 따라 어떤 도구들이 쓰이나?

A : 네, 구리 작업을 하다가 50살 즈음에 어깨를 다치고, 앞치마를 댄 척으로 갑상선 암과 임파선 전이까지 겪게 되었죠. 이런 이유로 금속 작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본을 여행하며 요리를 배웠고, 스페인에서는 친구 집에서 요양하며 주방 세프들과 함께 스페인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 기간의 휴식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바쁜 일상을 정리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힐링의 시간을 갖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영섭 금속공방 사진.



김천문화마을 예술감독을 맡아 진행한 '2009, 2012, 2016 마을 미술 프로젝트'.

예술은 나에게, 인간의 본질을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도구!



돌아갈 시간, 750x340x550mm, 2009.

A : 맞습니다. 다양한 금속을 다루다 보니 금속마다 필요한 도구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구리 작업에 쓰던 도구들은 스테인리스 스틸 작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드릴 날 하나, 망치 하나까지도 중복되지 않게 구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 조형 예술가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루는 테마는 어떤 것인가요?

A : 나의 조형예술을 향한 여정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술은 나에게 단순한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탐색하고 이해하려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질에 대한 오래된 나의 탐구는 시간, 사랑, 고독, 자연 등인데, 이 개념들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시간의 연속성과 순환성을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시간은, 단순히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일방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를 형성하고, 현재의 선택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러한 시간의 특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나의 작품은 사랑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탐구합니다. 사랑은 때로는 뜨겁고 격렬하며, 때로는 차갑고 이성적입니다. 다양한 면모와 감정의 변화를 통해 인간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사랑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러한 사랑의 복잡성은 우리가 서로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나는 사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진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Q : 작품의 다양한 소재 중에서도 물고기 작품을 즐겨 만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 우리의 삶은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풍요로워진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풍요와 함께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제가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고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며, 정지하면 죽습니다. 생체 조사를 하다 보면 일정 시간에 화귀하는 물고기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캐나다 밴쿠버에 지인들과 연어 낚시를 하러 갔을 때 목격한 것인데, 레이더로 본 물 속 연어의 군집 행태가 커다란 물고기 행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랙탈 이론처럼 작은 부분이 큰 부분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이렇게 대형 물고기를 이루는 최소단위인, 한 마리 물고기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상작용은 자



복숭이 지나간 뒤, 600x270x450mm, 2023.

연스럽게 문화운동이 된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확대되었고, 어느 커뮤니티를 이루는 한 인간을 기억하는 데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 부산국제영화제의 특별상인 부일영화상 트로피도, 물고기 모양을 모티브로 만드셨다고?

A : 네, 제 물고기 모양 작품이 부일영화상 트로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얼굴을 찾기 위해 여러 얼굴들을 겹쳐서 만들 듯이, 저의 물고기 형태도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겹쳐서 이자다 싶은 물고기 형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부산을 상징하는 바다와 물고기를 떠올리고, 세계적으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쉬지 않는 여정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Q : 사과나무 작품도 많이 주문 받는다고 하는데, 사과하면 떠오르는 에덴동산의 선악과와 윌리엄 텔의 사과, 만유인력의 사과, 그리고 현대의 애플 로고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사과에 대해 특별히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A : 매끈한 사과의 느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미학적으로 아아깃거리가 많은 소재입니다. 제게 사과는 행복한 결실이고 사랑입니다. 한번은, 성형외과 수술실 벽면을 사과 이미지로 도배해서 설치해 주었던 적이 있는데, 의외로 다들 만족하면서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게 사과는 나누는 행복을 상징하는 조형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부산미술계의 진정한 문화운동가

Q : 진영섭 작가 하면 또한 떠오르는 게,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게 된 '김천문화마을 프로젝트'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해 주시죠?

A : 마을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주민협의회, 부녀회, 청년회 등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을 사단법인으로 조직했습니다. 마을 주민 개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세가 당연히 중요하였던 겁니다. 주민들과의 유대감 형성이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주민분들에게 10년 동안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주민분들이 알아주셨는지, 지금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p.s : 진영섭 작가는 부산 금속공예의 선구자로서,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작품세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지속가능성과 자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자연과의 조화와 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동안 작가가라면 누구나 원하는 자신의 작품세계 완성에 몰입하기보다는, 사회적인 곳으로 열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신만의 원숙한 조형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기가 와서, 깊이를 더하는 완성된 작가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게 된다.

- 1987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
 1997, 1999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2회
 1992 부산미술대전 대상 수상
 2007 한국공예가협회 공예가 협회상 수상
 2009 부산미술협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
 201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 수여(김천문화마을 미술 프로젝트)
 개인전 1994 ~ 2022 (22회) (부산, 서울, 코베, 후쿠오카)
 주요 프로젝트 경력
 2009, 2012, 2016 마을 미술 프로젝트(김천문화마을 총괄대표)
 2010 부산문화재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산문화의 재발견 (예술감독)
 2011 ~ 2023 일본 대외문화 교류사업 아트 프로젝트 (예술감독)
 2014 부산시민공원 공영아트페스티벌 '공원공작' (운영위원장)
 2015 김해 가이타미파크 공공미술 프로젝트 총감독
 2019 중국 하이난성 선샤 사다아트 프로젝트(예술감독)
 2020 낙동강하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선셋뮤지엄(총괄대표)
 2023 사투길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술감독)

여성의 나부 이면에 담긴 모성의 손길

강선보 원로작가 회고전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사랑화가 강선보

부산미술협회 강선보 원로작가의 회고전이 7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린다. 강선보 원로작가는 미술단체 '해(부산에서 비구상을 가장 먼저 가져온 미술단체)을 통해 50여년 가까이 전시를 선보였다.

각 지역의 전국 작가들을 모아 만든 '남부 현대미술제'에서 매년 전시활동을 했으며, 해운대를 사랑하고 거주하는 작가들과 창립한 '해운대 미술가회', 부산 원로작가들이 모여 만든 '구인전을 해신하는 마지막 전시'를 끝으로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원로작가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HYBRID NUDE'를 주제로 하여, 여체를 중심으로 물감부터 캔버스, 액자까지 작가가 손수 제작한 130여 점의 작품들로 꾸며진다. 강선보 작가는 초창기 유화물감, 먹, 종합한지를 가지고 작업했다. 당시 캔버스를 제작해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 부대가 위치한 충무동에서 주문 텐트 천막을 캔버스 원단으로 사용했으며 가색안에 아교를 섞어 물감을 만든 대표 작품으로는 '태양(부산 시립미술관 소장)'이 있다. 이후 붓이 아닌 콤프레서 압력 공기 스프레이기에 물감을 넣어 캔버스 위에 뿌려 작업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



상황(Situation)202-1_58x73 cm, 캔버스에 유채, 2020.

이번 전시에서는 여체를, 중심으로 그려낸 영망어와 지문을 현대화하고 추상과 직선적인 요소를 가지고 표현한 그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Situation' 연작 시리즈에 대해 강선보 원로작가는 "엄마가 나를 양태해서 태어났을 때 영망어를 치는 모성의 손길, 섬세한 지문의 선이 아이의 영망어에 제일 먼저 닿아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였고 이를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말했다.

강선보 원로작가는 "중국,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과 기획전이 있었으나, 지금은 90년의 세월을 회고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가 젊은 작가들에게도 조그마한 자극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베어진 나무에 녹아든 삶의 미학

변화무쌍한 나무를 소재로

개인의 심상 담아내

5월 29일까지 석당미술관서 열려



공예가 한장원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이자 1970년부터 나무를 소재로 매년 새로운 작업 방식을 선보여온 한장원 작가의 전시 'wood works by HAN JANG WON'가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석당미술관 1, 2층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한장원 작가가 시행착오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하는 공간이며 아픔을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공간 'Holy Space'를 주제로 하여 그의 작업 세계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 50년간 작업한 500여 점 가운데 10년 단위로 변해온 대표 작품들과 함께 총 88점을 전시해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목재의 덩어리와 판재, 각재를 잇고 쌓아 독특하면서도 조화롭게 완성된 목조형 작업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 조각기법, 집목기법, 상감기법, 전통적인 옷칠, 유칠 등 방법으로 제작된 목재의 재색, 결 등의 특징을 적소에 명료하게 배치하며 그만의 미학이 내포된 세계관을 선보였다.

한 작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표현할 수 없는 추상적 가치, 자신이 가진 관념들을 삶의 과정이 나무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선택해 작업해 왔다. 나에게 나무는 삶을 정화하는 존재, 사유의 흔적이 남아있는

매개체, 해체되어서도 쓰임이 있는 재료, 시간의 흐름을 읽은 흔적과 감각이 있는 공간, 나무의 결이나 질감, 색감 등의 우연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전했다.



Holy space_50 x 90 x 180 cm, wood, 2023.

한 작가는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절실히 기대했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변화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순간 등 내 삶 어딘가에서나 찾을 수 있는 흔적들처럼 처연하고 강인하게 뿌리 내린 나무들의 존재를 생각하며 나를 찾는다. 이처럼 나를 찾아가는 방법 및 삶을 표현하는 원동력은 자신이 처한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나무로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뿌리를 내린 땅에 꿈쩍없이 박힌 채 운명을 견디는 생명의 에너지와 한작가의 철학적 사유가 만들어낸 작업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일깨운다.

한 폭의 민화에 담긴 비상의 날갯짓

현대적 감각을 더한 민화의 매력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선보여



민화가 안영숙

우리 선조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은 전통 민화를 소재로 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안영숙 작가의 개인전이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우화(羽化) 민화 이야기 시리즈-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하여 조선시대 후기 선조들의 문화와 염원을 담은 민화를 재현한 작품들부터 작가의 생각이 가미된 창작 민화도 함께 전시해 총 60점의 민화 작품들을 선보였다. 안영숙 작가는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주로 한자에 전통 재료인 치자열매를 사용해 천연염색을 물들인 후 짙은 색의 커피를 아교와 함께 사용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자에 스며든 물감의 번짐을 막고 발색을 돕기 위한 백반 가루를 섞어 민화의 색감을 조절하는 바림 기법으로 작업했다. 이는 바탕색을 깔고 정교한 테두리의 가선과 색의 자연스러운 강약 조절로 여러 번 색을 입혀 우리에게 조상들의 조형 정신과 의식을 반영하듯 소박하지만 화려하고, 투박한 듯 섬세한 표현을 달아냈다.

조선시대 태평성대의 활기차고 발전된 도시



태평성시도, 73x160cm, 한지에 채색, 2023.

상을 대상으로 표현한 <태평성시도>처럼 안영숙 작가에게 민화는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 우리나라 조상들의 전통이 담긴 그림이자 눈으로 읽는 그림이며 소재 하나에 뜻과 의미가 있다. 안작가는 "우연한 기회로 시작했는데 계속하고 싶은 열망에 선생님께서 따로 배우며 공모전도 내고 전시도 하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렸던 것 같다. 민화 그림은 색깔이 화려하다 보니 붉은 모란을 처음 그릴 때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밖으로 들릴 정도로 설했다. 작가가 되고 이렇게 개인전까지 하게 되어 나로서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고 기쁘다"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작품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의례 많은 동기부여를 얻었다. 이번 개인전에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 좋은 작품으로 두 번째 개인전을 준비 하겠다"고 전했다.

'2024 제23회 문신 미술상' 본상 수상

'생과 빛 그리고 에너지를

정통 각(刻)의 기법으로 조각한

김문규 작가 수상 영예 인사



조각가 김문규

석재, 목재 등과 같은 자연 재료를 탐구하며 자연과 삶에서 찾은 능동적 에너지를 조형화한 작업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뛰어난 예술성과 창작력을 인정받아 왕성하게 활동해 온 김문규 작가가

'2024 제23회 문신 미술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지난 5월 19일 제23회 문신 미술상 수상자로 본상 조각 김문규 작가, 청년작가상은 한국화 조현두 작가가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이어 5월 27일 오후 5시 창원시립미술관 야외에서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창원시에서 주최하는 문신미술상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예술정신과 창작활동을 기리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에게 시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문신미술상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심사위원 4명이 본상 후보자 5명을 놓고 작품성과 활동을 검토하여 토론한 끝에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상에 선정된 김문규 작가는 부산대학교 및 이탈리아 카라라 국립 미술학교 졸업한 후, 현재까지 13회의 개인전(독일, 이탈리아, 프랑

스, 시카고, 일본, 서울)과 400여 회의 국내외 초대 그룹전을 통해 무형의 형상화한 조각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부산



에너지 04, 대리석, 2004.

대학교 미술학과 조각 전공의 교육자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을 비롯한 미술계와 조각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김문규 작가의 예술정신과 창작활동은 조각가 문신의 예술혼을 기리는 문신미술상의 취지와 큰 뜻을 같이한다.

이에 김작가는 "작품 한, 두 점을 보고 주는 상이 아닌 작가적 삶을 보고 수상하는 상이라고 할 때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정되어 감사하고 송구스럽다. 앞으로 더욱 좋은 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본상 수상자인 김작가의 수상기념 초대전시는 '에너지 시리즈'로 한 목조 중심 작품들과 석조와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들도 함께 이루어져, 야외에 대작 1점과 중간 크기와 소품 30여 점으로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부산미술 단체를 찾아서 26

「부산 동맥회」 Since 1974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동아대학교 미술대학 동문의 모임



제38회 동맥회 정기전이 열린 BNK부산은행 갤러리 전시장 전경.

역사가 깃든 선·후배간의 예술정신을 계승해 나간다



동맥회 역대 전시 팸플릿.



제39회 동맥회 정기전이 열린 부산은행 갤러리에서 찍은 으른식 현장사진.

동아인의 맥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진 동맥회(東脈會)는 1974년 설립 당시 초대 서재만 회장을 필두로 하여 강신보, 김문산, 김재구, 김종근, 김태진, 유무수, 박규항, 백낙효, 백성도, 손기덕, 심명보, 이성재, 이인용, 이평열, 조정자, 지덕창, 최영애, 허기태 총 18명이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맥을 이어온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생들의 동문 전시 활동 단체이다.

1974년 7월 7일 제1회 창립전 부산대파트 전시실을 시작으로 그 외에 타워미술관, 가톨릭센터 전시실, 용두산 미술관, 석당 미술관, 부산은행 갤러리 등 부산지역 미술관에 작품을 발표해 왔다. 이처럼 동맥회는 50년이 넘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동문 간의 결속을 다져온 동문전으로써, 긴 세월만큼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일반적인 미술단체와 달리 동문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함께한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문전인 것이다.

동맥회는故 김일광, 김동영, 이성재,故 백성도,故 이두옥, 백낙효, 여흥부,故 정갑주, 이광준, 정지태 등 한국화, 서양화, 판화 등 다양한 평면 회화의 영역에서 수많은 졸업생 작가가 배출되고 참여하며 뜻깊은 전시회를 가졌다. 이는 곧 부산미술의 한 축의 성향과 지역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 기법에서 채색화와 현대적 표현기법의 한국화 전공, 구상부터 추상까지 다루는 서양화 전공, 현대의 다채로운 판화기법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온 판화전공 작가까지 부산의 문화·예술 분야를 선도하며 부산 미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1974년부터 매년 정기 전시회와 미술 관련 동문 연합전시회를 가져온 동맥회는 현재 이광준 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강봉주, 강정화, 고미숙, 고은주, 곽태임, 권순교, 김경애, 김국보, 김남영, 김남주, 김동성, 김동영, 김명수, 김상열, 김영희, 김용옥, 김운규, 김정현, 김종택, 김지은, 김진한, 김현철, 김홍련, 김희진, 류주영, 박국영, 박기태, 박명수, 박미경, 박미옥, 박보경, 박순연, 박승희, 박외영, 박인숙, 배기현, 배지원, 백근영, 백낙효, 백유미, 서민자, 서아희, 서은혜, 손성일, 송현주, 송호준, 신미숙, 신성호, 심점환, 양현정, 여흥부, 오재환, 옥진화, 윤수관, 이광준, 이동화, 이상봉, 이성재, 이주진, 이준재, 이지송, 이진명, 이진희, 이창남, 이화영, 임정아, 임정훈, 임현숙, 임현지, 전명덕, 전보미, 정승화, 장인화, 정지태, 조덕현, 조용문, 조은휘, 조인호, 주옥경, 채경혜, 채민정, 최근석, 최말애, 최미선, 최성일, 최창임, 최학보, 최훈철, 탁경아, 하훈수, 하철, 허필석, 홍창우, 황경희, 황진택, 강병훈, 김강희, 김인지, 김종혜, 문정은, 박경목, 박광택, 박영희, 박자용, 박중선, 박찬미, 배남주, 서영덕, 성인형, 손미량, 송형노, 신상용, 신소영, 신정민, 안정연, 강경화, 임재홍, 오다아, 이기택, 이주영, 이철호, 장경숙, 장영훈, 재미영, 조민지, 조소연 작가 등 운영진을 포함한 총 60여 명의 동문이 부산지역 전문 작가로서 자율적으로 참가하며 해마다 참여 인원은 유동적이다.

동맥회 이광준 회장은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과 아울러 자신이 속한 미술 단체의 본질적 가치와 노력으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요즈음 화단에서 보이는 미술 단체는 저마다 특색이 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단체가 생겨났다가 또 사라지곤 한다. 그러나 동맥회는 학교와 동문이란 고리로 연결된 만큼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고 또 발전하리라 본다. 현재 50년을 넘긴 세월만큼이나 선배 회원이 성장 발전하고 또 화단에서 후배 회원에게 귀감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가을에 정기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동문이 서로 소통하여 선·후배 간의 대화와 유대관계는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부산 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컬렉터 집중분석

- 스물두 번째 이야기



김상현
학술영향문화 회장

이 코너에서는 미협회원들의 작품 컨셉 연구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미술사에 남게 된 위대한 예술가들의 개념과 관련된 자료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개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필자와 함께 공부하는 컬렉터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Amor fati : das sei von nun an meine Liebe!

운명을 사랑하라 : 이것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라

-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지식> 중에서 -



피니체, <즐거운 지식>(Die frohliche Wissenschaft), 1887 / 위 골리라 피티스, 바나타스 정물화, 1610.

끝없는 인기, 정물화(靜物花, Still life painting)

화병에 꽃이 담겨있는 정물화는,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너무도 친숙하게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런데 왜? 일상적인 사물을 그린 정물화는 미술시장에서 인기가 여전히 계속될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배경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시대적 배경과 그에 따른 미학적인 깊이가 있기에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물화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폼페이와 같은 로마 도시에서 발견된 벽화를 보면, 정물화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성경 이야기나 종교적인 주제를 표현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성경의 내용을 그린 장면 속에 음식이나 물건이 정교하게 묘사되었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 정물화는 독립적인 회화 장르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의 주세페 아르침볼도(Giuseppe Arcimboldo, 1526-1593)가 대표작인데, 그는 현재에도 시대를 앞서간 천재로 재조명되고 있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는 정물화가 크게 발전하고 미학적인 깊이까지 갖게 되었다. 지금의 네덜란드가 중심이 되는 플랑드르 지역에서 유행한, 그 유명한 '바나타스(Vanitas)' 정물화가 이에 해당한다. 위에 예시된 작품인 클라라 피티스의 정물화가 그것인데, 그는 네덜란드 바로크 화가로 당대에 가장 유명한 여류화가이기도 했다.

중세의 종교적인 타락과 계속된 전쟁, 그리고 유럽을 강타한 기근과 흑사병 등으로, 바로크의 정물화는 종교적, 도덕적, 철학적 의미를 심오하게 담고 있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게 된다.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허무·무상함·덧없음'을 뜻하는 '바

나타스'는 당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용어다.

평화롭고 자애로운 동성녀 마리아가 중세 전성기를 상징했다면, 죽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허즉허즉 웃는듯한 해골은 중세 말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로크의 세계관은 철학자 니체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어떠한 존재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러기에 오히려 삶을 긍정하라'는 그의 생철학 핵심인 '아모르 파타타'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정물화를 통해 빛과 색채를 실험했는데, 인류가 사랑하는 반 고흐와 폴 세잔느의 작품들로 인해, 정물화는 대중과 더욱 친숙해지게 되고 현대까지도 그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

현재 세계 미술시장에서는, 연간 4천억 원가량의 작품을 팔고 있는 게르하르트 리히터가 바나타스 정물화를 연구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바 있다. 1980년대 초 촛불을 그린 24점 연작은 단 한 점도 팔리지 않았었는데, 세월이 흐른 2012년 가을 크리스티 경매에 그중 한 작품이 다시 나와 1,650만 달러(한화 약 180억원 상당)에 낙찰되었다. 이러한 리히터의 성공 이면에는 그의 철학적 사유가 바나타스의 미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화 게르하르트 리히터, 촛불과 해골, 캔버스에 유채, 100x150cm, 1983 / 위 김은주, 기린히 꽃을 그려보다, 종이에 연필, 2022.

p.s : 부산 출신 김은주 작가의 연필로 그린, 검은 정물화를 함께 올려본다. 그의 검은 정물화도 바나타스의 미학적 해석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문화 탐방, 漢城 1918



2018년 4월 부산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탄생된 한성1918. 작은 사진의 과거의 모습.

파란 하늘, 청량한 날씨가 기분 좋은 계절이다. 빨간 덩굴장미, 수국, 낮 달맞이꽃들이 웃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꽃들에 미소 지으며 지나간다.

중구 동광동에 있는 漢城 1918은 1918년 한성은행 부산지점으로 설립된 이래 약 40년간 은행 업무를 보던 곳이었다. 60년대에는 개인에게 매각되어 상업 용도로 이용되었고, 철거 위기에 있던 것을 부산시가 사들여 2018년 4월 '한성 1918-부산 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100년 만에 생활문화거점 공간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왔다. 금융도시의 부산을 알리는 근대건축물(빨간 벽돌의 3층)로서 그 모습과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문화도시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자구는 끊임없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중이고, 바다 온도 역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해 3월, 일본 대마도에서 양국 시민 100여 명이 함께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 행사가 진행되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한·일 양국의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했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참여예술(Socially engaged arts, SEA)을 실현하였다. 1층 전시실에는 '2024년 기후위기 탄소중립 with 비치코밍 아트展'이 전시 중이다. 비치코밍이란 해변(beach)과 빗질(combing)의 합성어로 빗질하듯 바다 쓰레기를 줍는 것이다. 전시장에는 행사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가지고 닥종이 공예로 현장을 재현해 놓았다. '상처로 호흡하는 바다' 현장법 작가의 글이 있다. 바다는 상처로 피해자의 바다였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라보며 느낀

것은 가해자의 미안함이었다. 바다의 아픔과 상처를 영상 설치와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자홀 지하 1층 전시실에는 비치코밍 행사를 통해 버려진 사물의 가치를 예술작품으로 탈바꿈시켰다. '대마도에서 온 시그널'은 모상미, 유란희, 박미선 작가의 작품이다. 올해 3월 일본 대마도에서 진행되었던 비치코밍 행사 때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공존」 백승희 작가는 우리가 바다에 버린 쓰레기들이 결국은 다 같이 바다 위·아래에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했다. 「순환(循環)」, 「윤·海(海)」의 송현 작가는 인간이 이기심으로 버린 쓰레기가 해양 생물의 몸에 축적되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작품이다. 「공해(風海)」 백승희 작가는 해류에 의해 떠다니는 해양쓰레기는 어느 나라든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나라 썩 쓰레기가 대마도 해안가에 떠내려가 있는 해류 영향을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깊은 바다 만티 두공 이야기」의 조현심 작가는 해양멸종 위기 동물인 '바다소 만티 두공'이 해양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작업에 임했다. 대마도에서 수거해온 해양쓰레기와 폐섬유로 제작된 '두공의 눈'을 바라보았으면 한다. 그의 눈 안에 해양쓰레기가 가득한 세상이 빛나고 있다. 「확대와 나열」 백보람 작가의 오브제들은 채집된 해양쓰레기를 현미경

카메라로 촬영하여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고요 속의 외침」 모상미 작가는 거북이가 해양쓰레기들로 인해 겪는 고통을 터프팅(tufting) 천위에 실을 삼아서 작업 기법을 통해 표현했다.

청자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역사의 흔적 '해안선 석축'이 있다. 발견된 석축의 위치는 1678년부터 1876년까지 존속한 초량왜관 동편의 동북쪽에 해당한다. 왜관 내 사찰인 동향사(東向寺)의 동북편 도로 면과 모래 해안선의 경계 지역 경사면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성 시기는 1902년부터 1905년 사이로 추정된다. 그리고 '청자홀 벽체', '청자벽화, 구들(은돌), 상량(上樑), 구주소 표시(동광 1-1), '도르래' 등 근현대기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우리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史實)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며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또한, 과거를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찾으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漢城 1918」 1층은 '한성라운지'와 '청자홀' 2층은 '사무실' '교육실' '마음'이 담겨있는 공간 '나온 테라스'가 있으며 3층 공간은 '마루방' '음악실' '공유식당' '옥상정원으로 되어있다. 1층 전시실을 포함하여 대부분 공간은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역사적·공간적 상징성을 결합한 漢城 1918은 전

사를 통해 지역 작가는 물론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며 소통하는 생활문화거점 공간이다. '비치코밍 아트展(24.4.22~5.31)'에는 작가들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었고, 그



빈프로젝터가 준비되어있으며 전시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1층 '한성라운지'.



공연, 전시, 영상상영,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지하 1층 '청자홀'.

안에 담긴 이야기를 다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진실했다. 오늘 또 다른 인연을 만났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미래가 만들어질 공간 漢城 1918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학술평론분과위원 진수아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3 / 중구 동광동 3가 11, 문의: 051-257-8037-8038 (대관, 가는 길 지하철 1호선 중앙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별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 부근에 유료 주차장 있음.

청소년미술제 학생그림공모전 시상식



제38회 부산청소년미술제 학생그림 공모전 시상식 수상기념 단체사진.

지난 5월 20일 부산예술회관 3층 전시실에서 제38회 부산청소년미술제 학생그림공모전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가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부문에서 청소년들의 멋진 기량과 잠재력이 넘치는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돼 앞으로 부산 예술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부산시장상에는 브나래예술고등학교 3학년 2반 조은호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교육감상에는 브나래예술고등학교 송선형, 이서준, 예총회장상에는 브나래예술고등학교 김시연, 김아라 미협이사장상에는 브나래예술고등학교 권엘림, 류경원, 최민서, 최소정, 학산여자고등학교 김진희, 장안고등학교 이수빈, 최우수상에는 브나래예술고등학교 구준서, 김경훈, 남이윤, 이수빈, 정관중학교 김리원이 각각 수상했다.

제35회 부산청소년미술캠프 전시



2024 제35회 청소년미술캠프 금련산갤러리 전시 전경.

지난 5월 21~26일 금련산갤러리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제35회 부산청소년미술캠프' 창작 작품 전시가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다. 본 전시는 6월 4일부터 28일까지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창작 작품 순회 전시로 이어졌다.

이번 미술캠프는 '생태와 삶, 인간(생명)에 대한 감수성에 눈뜨다'를 주제로 하여, 학생 상호 간의 협업으로 탄생한 입체, 설치 작품들부터 개성이 담긴 시각 디자인, 회화, 만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창작전시는 최종 선발된 부산 소재 고등학생 총 69명이 참여해 청소년들의 흥미로운 발상과 실험정신이 묻어나는 작품들로 인해 많은 부산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져 유망한 부산 청소년들의 예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창작 세계를 함께 엿볼 수 있었다.

부산자랑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 공모전



부산자랑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 포스터.

부산광역시 주관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사한국예술문화단체 부산광역시연합회가 후원하는 사부산미술협회 제33회 부산자랑 10가지 순회시민예술제 미술공모가 지난 6월 17일부터 시작되었다.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에 대한 향토애를 고취시키며 자연환경·명소·명물에 대한 역사성을 재인

식하기 위한 행사로써, 참가대상으로는 부산사내 유치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크레파스화, 수채화, 파스텔화, 소묘뿐만 아니라, 만화, 웹툰 등의 이미지 디자인과 사예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있다. 올해 작품 주제는 부산자랑 10가지와 부산시민공원, 부산의 골목이다. 6월 17일부터 7월 31일 오후 5시까지의 공모기간을 거쳐, 7월 22일부터 7월 31일 오후 5시까지 작품접수를 받는다. 또한 올해 선정된 입상작들은 부산미술제 및 BFAA국제아트페어 행사기간 중 나누어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미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화인칼럼

< 동시대 미술과 도시 뉴욕 >

[2. 동시대 미술과 미술관]



김지호
ARTSAN 대표

20세기 초 사실주의와 자장주의가 지배적이었던 미국화단은 아모리 쇼 이후 뉴욕의 작가들과 신흥부자 미술애호가들을 중심으로 유럽의 새로운 미술 사조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럽 야방가르드 미술에 대한 뉴욕의 개방적인 사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과 같은 대형 미술관에서는 문화수호라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유럽의 전위예술을 찬대했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설립자인 록펠러 부인이 당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근대 미술전을 제안했다가 좌절되자 1929년 MoMA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부호의 딸 휘트니는 미국 미술품 700점을 기증하려다 거절되자 자신의 이름을 딴 휘트니 미국미술관을 차 1931년에 개관했다. 1939년 구겐하임미술관이 칸딘스키 소장품을 기반으로 '비구상 회화미술관' Museum of Nonobjective painting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다.



현재 5번가에 위치한 MoMA는 200,000점 이상의 근현대 컬렉션을 소장하여 세계적 명성을 가진 미술관이다.

오늘날 동시대 미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미술관들의 탄생은 전위예술과 함께 환대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뉴욕의 신생 미술관들은 작품을 취급하는 방식에서 유럽의 전통적인 미술관들과 차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전 미술관들은 바

닥에서 천장까지 빼곡하게 작품을 거는 살롱 전의 방식이었으나 MoMA의 초대 관장이 된 바 Alfred H. Barr는 미학적 자율성에 의거한 새로운 전시 방식을 제시했다.

관람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을 일렬로 걸고 작품들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둬으로써 각 작품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전시의 벽도 중성적인 베이지나 브라운색을 사용했다. 전시된 작품은 오로지 순수한 미학적 경험 대상으로서 전시되어 관람자와 일대일 관계를 형성한다. 미술에 대한 미학적 관점 감성적 태도 등을 바꾸는 새로운 미술관 문화는 일반 대중이 아닌 미적 감각 능력을 갖춘 소수 전문가를 위한 전문 미술관 문화를 제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술관은 동시대 미술의 흐름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유럽 전위예술을 접하고 심취해 있던 페기 구겐하임의 '금세기 갤러리 Art of This century'는 유럽 전쟁을 피해 망명 온 작가들-특히 추상주의와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가들과 미국 작가들 간 교류의 장이 되면서 1945년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탄생시키는 배경을 제공했다.

미국 추상표현주의는 유럽 미술의 오랜 전통인 아펠 회화의 관점에서 탈피, 회화의 물성인 캔버스와 물감, 붓이라는 물성의 사용법 대한 고찰, 대상의 재현 및 유럽 야방가르드

사조에서 탈피한 완전한 미국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초의 시도였다. 1961년 MoMA는 미국 추상회화와 조각 전시 개최함으로써 추상표현주의를 세계적인 반열로 끌어 올렸다. 1961년에는 아상블라주 미술전을 기획해 팝아트를 제도권 미술에 편입하는 데 일조했다. 이렇듯 추상표현주의 이후 팝아트, 미니멀리즘, 색면 회화 등으로 이어지는 뉴욕 미술의 경향이 미국 미술사를 넘어 세계미술로 공인되고 영향력을 갖게 되는 데는 뉴욕 미술관들의 역할이 있었다.

21세기 현재 뉴욕은 과거 전위적이었던 MoMA, 구겐하임미술관은 고전적인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세계 미술시장을 선도하는 켈시의 대형 갤러리들과 Dia Beacon, Brant Foundation, New Museum, Queens Museum 등의 신생 미술관들이 잇따라 설립되고 파격적인 미술가들을 발굴하고 구입하고 새로운 전시형태를 보여주는 등 동시대 미술의 역동적인 현장이다.

오늘날 뉴욕이 동시대 미술의 메카로서 새로운 흐름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전위적인 공연, 무작위, 영화, 패션, 건축, 합창, 펑크 음악, 현대무용 등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뉴욕의 문화 융광 속에서 시각 미술을 움직이는 조직적인 미술관 및 갤러리 시스템이 함께 연동되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Close Up 28

어른을 위한 동화, 모험과 꿈속을 거닐다



청년작가 이현정

살아가면서 점점 책임져야 할 것들이 늘어나며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무게도 같이 비례해서 무거워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잊고 살아간다. 하지만 한번 보편된 기억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

본인은 내면에 오랜 기간 형성된 이미지들의 느낌과 경험한 것들 가운데 무의식 속 잠재된 감정적인 감정들을 동화의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 내는 중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꾸는 자유롭고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본인이 가진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내서 억압되고 해소되지 못한 답답한 감정에 해방감을 줄 수 있음과 동시에 현실에만 얽매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현실이 아닌 낯선 세계를 모험하고



Follow the White Rabbit, 80x50x130mm(Sea), Brass, 2024

탐구하는 것에 대한 갈망은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와 연관되어 있다. 피터 래빗,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어린 왕자와 같은 동화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순한 동화 속 장면의 재현이 아닌 어린 시절 느낀 감정 혹은 감정이 섞인 상상과 상징을 통해 실제화되길 바란다.

주로 동화 속 장면 혹은 요소들을 가지고 재인식 후 조형화하는 단계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에서 초현실주의적 표현기법들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작가의 상상력과 환상을 담아

내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과 생각의 전환을 통하여 이미지를 연출하고 반복 또는 중첩함으로써 주관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동화 속 사물을 생각의 전환을 통해 무의식의 다양하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동화 속 등장인물을 주관적 해석을 섞은 새로운 인물로 탄생시킨다. 단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등장 인물이 보이지 않거나 표현이 되더라도 얼굴이 없는 형태로 묘사된 것이 본인 작품의 특징 중 하나이다. 작품

을 감상하는 사람들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모험하는 데 있어 다른 인물들에게 방해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실제 물체를 가지고 물드를 떠서 캐스팅하거나, 조각도를 사용해 왁스를 깎아 모양을 만들거나, 3D 프로그램을 이용해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 등 기법이 일관되어 보이지 않는 이유 모두 작가 본인이 의미 표현하는 데 가장 최적의 방법을 장하기 위함이다. 작가 작품에 등장하는 시각 프레임은 무의식 속 잠재된 감정들을 담아내는 일종의 보관함이다. 이 보관함을 열어 본인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는 혹은 집중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그저 본인의 내재된 감정을 작품 감상을 통해 가시적 현실을 극대화고, 감정의 해방을 느끼길 바란다.



Priority, 300 x 210 x 370 mm, Copper, Brass, 2022.



Moonlight Dance, 200 x 100 x 300 mm, Copper, Brass, 2021.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조형학과 섬유금속전공 학사졸업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조형학과 금속조형전공 석사수료
- 2024 『부산미술로 꿈을 꾸게 하다』 제12회 청년작가展 최우수청년작가 선정
- 2024 Do dream-2024, 연결 그리고 이어짐展, 화상사육 라운지
- 2024 'A... TOZ展 II,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 2023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기획전시 예술의비대 ENCODE,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 2022 BFAA 아트페어, 벡스코 제2전시장 4홀 C17
- 2021 DO DREAM, 부산대학교 아트센터
- 2017 국제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케드부원) 우수디자인대상

노동집약적 행위에서 표출되는 우주적 상상

6월30일까지 설미재미술관서 열려



서양화가 이성재

5월 2일부터 6월30일까지 설미재미술관, 캔버스 위 굽어내고 지우는 반복적 결과물로 드러난 선형의 현상을 통해 독자적인 사유의 공간을 펼쳐 보인 이성재 작가의 기획초대전이 '행위의 반복과 시간 응축의 현상'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반복되는 행위 친을 작가의 손끝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행위 '계곡'을 사유적 체험을 통해 우연성과 필연성을 극적으로 표현해낸 작품들로 전시됐다.

이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회화의 기본 요소인 선이 응축되어 하나의 면을 이룬다. 교차하는 선과 평면 위의 무한한 세계 안에서 나타나는 삼각형과 같은 일정한 크기의 면은 기호화된 이미지 개념에서 확장된다. 선과 선이 교차하며 화면 가득 그려진 작업의 실체는 상황에 부여하는 것이며, 잔재한 생각의 조각

들이 추상적 이미지, 재현의 방식으로써 생겨나고 또 다른 행위를 부여하고 새로운 세계로 이끈다.

이 작가는 "50년 넘게 해온 일어난 단계를 머무르곤 한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터치하는 삶의 연속이고, 거기에 의식을 묻고 살아온 나날들, 목적지 없는 여행의 연속성 속에 살아오고 있다. 작업에 임할 때면 독사 같은 냉철함으로 임하고, 삶에서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생활철학을 안고, 매일 화두처럼 작업이미지를 안고 살아간다. 항상 없는 내면표출 속에서 그리기 이전의 근원적인 행위가 앞서고 그 뒤를 잇는 나의 행위가 점목된다고 밝혔다.



우연과 필연 _162x130.3cm, oil on canvas, 2022.

현대인의 고독함을 탐미하다

5월9일~6월3일 인사아트센터



서양화가 류동필

두 얼굴을 가진 장동 약사 캐릭터 'Fun'을 주인공으로 하여 사람들이 지닌 양면성과 다양성을 빚대어 현대인의 초상을 사리르르 그려온 류동필 작가의 개인전이 서울 인사아트센터 부산 갤러리에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어있는 장동 로봇을 페르소나로 하여 공허하면서도 화려한 외면을 좇는 현대인의 초상을 은유적으로 그려낸다. 현실 속 개개인은 자신만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관계를 위해 그것을 과장하거나 숨기는 모습을 보이며 내면에 자리한 여러 페르소나를 탐색하고 그중 하나의 가면을 드러낸다. 작품 'Fun story (Mr. FUN)'을 보면, 메마른 현실과 차가운 감정들을 장동약사 캐릭터가 희로애락을 노래하듯 다듬어진 형태와 색감을 토대로 조형화하여 정교하게 그려냈다.

류 작가는 "개인전은 새로운 생각과 표현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언제나 긴장도 되고 늘 조심스럽다.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의미의 학습 시간이 되고 다음 작업에 있어 중요한 자양분으로 자리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그랬듯이 한가지의 표현 방식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앞으로는 또 어떤 방식과 표현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난 저기에 충실할 것이고 그렇게 창작물을 생산해 낼 것이다. 장르에 갇히지 않는 작업과 표현들, 그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작업의 무한한 길이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Fun story (Mr. FUN) 90.9 x 72.7 cm, Acrylic on canvas, 2024.

비일상적이고 환영적인 옛 풍경을 그리다

지난 5월 부산시청 전시장서



서양화가 문명숙

5월 5일부터 11일까지 부산광역시 시청 제1전시실, 문명숙 작가의 4번째 개인전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두산 해바라기'를 주제로 하여, 어린 시절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문풍지의 문, 장독, 집, 꽃, 추억이 물어나고 따뜻한 기억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가장 한국적인 정서의 풍경들을 그려낸 작품 총 50점을 함께 전시했다.

문명숙 작가는 옛 우리 민족의 삶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백두대간에 피어난 해바라기를 떠올리며, 과거 한옥 주거형태의 집 앞에서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에 아름답게 흔들리던 해바라기 꽃들의 순박하고 영민한 자태를 담아냈다. 우리나라 정기와 기백이 백두산에

피어있는 곧고 힘찬 해바라기 줄기를 표현하기 위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아사 천에 캔졸, 유성, 아크릴 화이트를 밑칠하고 말린 후, 색연필로 스케치를 하여 배경색을 먼저 칠하고 유화물감을 사용했다.

문작가는 "온 정신을 집중해 침착하게 임해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창작하는 모습을 잃지 않고 해마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미술계의 한 부분에 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백두산 해바라기 _162.2x130.3cm, oil on canvas.

절제된 사실 묘사로 그려낸 자연의 화음

인사아트센터서 지난 5월 전시



한국화가 이희호

5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부산 갤러리, 배경 화면 구성의 변화를 거치면서 자연에서 관찰한 소나무를 그려온 이희호 작가의 20번째 개인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8호부터 대형 작품 1000호까지 변화무쌍한 소나무의 형상 속 다양한 시점을 찾아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한 그림들로 총 43점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이희호 작가의 작품 속 소나무는 지역의 풍토와 기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 전통 소나무처럼 소나무의 잎과 줄기를 따라 그만의 자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자연적 배경의 표현부터 솔잎에 맺힌 물방울에 반사된 무지개의 느낌까지 서양화와 한국화가

융합된 세밀한 기법과 원근감을 더한 제작 기법으로 심미적 풍경을 담아낸다. 이에 이희호 작가는 "작품을 할 당시 수십, 수백 자루의 세필이 닳아 없어졌고, 간밤에 내린

비에 물방울 머금은 솔잎 위에선 무지개가 피어나고, 소나무 등차에 기대어 앉아 솔 내음을 만끽하며 보낸 수많은 시간 속에 기운 상승과 웅장함을 표현하는 고원법 기법으로 화면 가득 채워진 소나무 숲의 이야기와 남겨진 흔적에서 위안을 얻기도 했다"고 밝혔다.



계룡산 소나무 _116.8 x 91.0 cm, Acrylic on Canvas, 2022.

무희처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표상

7월1일까지 인사아트센터서 선보여



서양화가 최윤선

서양화가 최윤선의 전시가 6월 26일부터 7월1일까지 서울인사아트센터 부산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A sweet melody in life'를 주제로 하여, 보통사람들의 이야기이자 삶의 주인공인 평범한 우리들만의 일상 속 리듬을 도식화한 50여점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티스의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최작가는 사물과 대상을 비틀어 생각하지 않고, 작가가 느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거친 붓과 손을 사용하거나 굽어내기도 하는 등 틀에 갇히지 않고 계산되지 않은 그림 그렸다. 주로 주황색 계열의 색감을 입힌 유화작업을 선보이며 큰 주제인 'Fluttering'의 의미처럼 작은 날개 짓의 피터피터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감정을 작품세계관에 담으려 했다.

이에 최작가는 "어느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어가는 뒷모습에서 삶의 동반자, 연인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생각났다. 화살같이 지나가는 시간만큼 내가 느낀 감정이 그림에 녹아들 수 있게 그려야겠다고 생각하며 '파트너 (sold)'란 그림을 그렸다"고 밝혔다. 또한 "하얀 캔버스 앞에 앉으면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할까하는 부푼 기대감이 든다. 창작을 하는 시간은 유쾌하다. 작품과 대화하듯 색을 입히고 걸음마를 시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조련사가 되기도한다"며 작업 당시를 회상하며 전했다.



Lipslick _65.1 x 53.0 cm, oil on canvas, 2024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장난감

지난달 8일까지 한달간 서린스페이스



조각가 임지빈

수많은 사람들이 수집하고 구입하는 화려한 디자인의 아트 토이 베이브릭을 차용한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의 이면과 현대인의 욕망과 사회상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임지빈 작가의 개인전이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갤러리 서린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부산에서 10년 만에 열린 개인전으로 'Circle of Life'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인들의 반복된 일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사회를 이루는 과정과 16년간 수작업을 고수하며 소요된 작업시간과 노동력의 가치를 빚대어 담아낸 조각, 게임라 벌룬 소재 설치작업, 사진작업을 전시했다. 메인 작업으로는 머리가 총 200개 가까이 120호 크기의 부조로 이루어져 붙어있는 큰 작업 'every day'가 설치됐다. 임작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일

상적인 공간을 미술관으로 바꾸는 게임라 설치 형태의 작업 'Every where' 프로젝트, 수작업으로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간 조각 작품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임작가는 "나는 미술을 접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은 작가에 가깝다. 그런 지점을 작업에 녹여서 보여주고 싶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올덴버그 작가처럼 일상에 녹아들 수 있는 공공미술 작업을 집중적으로 길게 이어 나갈 예정이며 점차 해외에 나가서 게임라 설치를 계속하고 전시도 많이 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어제 오늘 내일 _Gaphle on plastic, 120x80x190 cm, 2023.

2024 부산판화가협회 전시회 개최



들을 선보였다. 부산판화가협회 서유정 회장은 2024 부산문화재단의 <우수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환경'이라는 공동 주제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의미를 담아 슬로건을 내걸었다. 특히 국제적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 대구, 부산, 바르셀로나, 차양마이의 예술공동체, 판화스튜디오 소속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현대판화의 재도약을 위한 지역미술과 국제 교류를 통한 문화적 환경과 활성화를 조성하며 지면 확대를 도왔다. 한편 지역민들이 창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부터 부산지역 신진작가들의 판화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부산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예술문화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했다.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술지구P,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금련산갤러리에서

부산판화가협회는 지난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예술지구_p에서 진행된 1부 전시에서는, '예술과 환경, 글로컬 프로젝트#1 LIVING, WORKING, PRINTMAKING'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 금련산갤러리 2부 전시에서는 '판화, 환경과 치유'로 각 전시장의 장소성에 맞추어 총 70여명의 작가들의 250여점이 넘는 판화작품과 프로그램

2024 제28회 부산회화제 개최



부산미술협회 원로작가 26명, 부산미술협회 회원 196명, 비회원 165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28년을 맞이한 부산회화제는 매년 개최되며 단일 장르 미술행사로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축제다.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더불어 부산 서양화의 정체성과

2024 제28회 부산회화제 전시포스터(왼쪽)와 전시회 개막식 현장사진.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부산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제28회 부산회화제가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동행2024전'이라는 주제로 열려 많은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번 전시에는 오일페인팅, 수채화, 파스텔화, 혼합재료 등 작업의 제한이 없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들과 함께 총 387점이 출품되었으며

현주소를 한눈에 파악하며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유선경 회장은 "1997년 부산지역의 서양화 구상작가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출범하여 부산미술협회 서양화분과 회원들과 지역의 미술인들의 교류를 위해 현재까지 꾸준히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이전보다 폭넓고 더 많은 인원 참여를 목표로 했으나 공간적 한계가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4 제52회 창작미술협회 정기전



미술협회는 창작에 대한 열정과 책임으로 긴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창립 당시 원년 멤버인 원로 작가님들도 꾸준히 참여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구상, 비구상 작품부터 혼합매체와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 총 32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2024 제52회 창작미술협회 정기전 포스터(왼쪽)와 정기전 기념사진.

6월 11일~ 16일 금련산갤러리

지난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52회 창작미술협회의 정기전이 금련산갤러리에서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983년 6월 열린 첫 창립전을 시작으로 현재 김지영 회장을 필두로 하여 부산 지역작가로서 이름을 알리며 꾸준히 활동해 온 40여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특히, 창작

김지영 회장은 "창작미술협회는 52년간 정기전을 펼쳐온 만큼 창립 당시 작가님들, 중견작가, 청년 작가까지 무철한 작가정신을 이어받으며 창작활동에 전념했다. 지난 정기전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부산 미술가를 배출시키며 성장해 온 만큼 젊은 작가들이 영입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창작미술협회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전시 소감을 밝혔다.

제32회 부산한국화전 부산·경남 한국화 기획교류전



이정근_소사촌의아침_화선지, 먹, 불감, 20호, 2024(왼쪽), 장이만_향기로운 날가운데, 정인우_강가에서, 10호.

6월 24일~30일, 부산광역시청 2·3전시실, 금련산갤러리서 개최

제32회 부산한국화전 부산·경남 한국화 기획교류전이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청 2·3전시실과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전통 한국화를 계승하며 현대 한국화의 지역성과 다양성의 향기를 향유 고취하고자 마련된 이번 전시는 부산미술협회회원 105명,

비회원 50명, 경남 작가 30명이 참여해 총 185점이 전시됐다. 한지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혼합 재료 및 한국화 전통 재료를 사용한 작품들을 함께 전시했다.

김현철 회장은 "이번 기획교류전은 부산지역 사회의 다채로운 현대 한국화 작품을 관람할 기회를 마련했으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함으로써 부산 한국화의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자 했다"며 전시 소감을 전했다.

제2회 향성회 정기전 열려



이번 전시에서는 '색과 공의 향기로운 소리를 부재로 하여, 다양하고 개성 있는 작가들의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 향기로운 소리가 세상으로 울려 퍼지리라'라는 뜻을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향성회 정기전 포스터(왼쪽)와 2024 제2회 향성회 정기전 포스터(가운데), 2023년 제1회 향성회 정기전 오픈식 사진.

7월 8일부터 부산진구청 1층 백양홀

향성회의 정기전이 7월 8일부터 13일까지 부산진구청 1층 백양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10호부터 20호까지 1점씩 출품하여,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유화 등 다양한 기법을 선보인다. 부산미술협회 25명, 비회원 1명의 총 26명의 작가들이 경험하고 느낀 불교의 경험과 느낌을 독특한 기법과 재료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박선민 회장은 "작년 제1회 부산 불교미술인협회 향성전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제2회 향성전을 개최 하게됨을 기쁘게 생각함과 동시에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든다. 오랜 시간 부산 불교미술인모임이 있었으면 하는 염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과 믿음을 바탕으로 배움과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여 포교활동에도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 미광화랑 <꽃피는 부산항 11회전>



찬, 이의주, 임호, 전혁림, 제정권, 하인두, 한상돈, 황규용 24인과 한국화가 이규옥, 이석우, 이형섭 3인으로 구성되어 총 27인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지난 2024 꽃피는 부산항 11회 출품된 1958년 작품인 김원의 모자상(왼쪽)과 1950년대 작품인 김남배의 구두담이.

5월 15일~31일 미광화랑서

지난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미광화랑에서 부산, 경남 지역의 근현대미술가들을 조명하는 <꽃피는 부산항 11회전>이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가는 서양화가 김경, 김원, 김남배, 김대륜, 김영덕, 김원갑, 김종근, 김종식, 김홍석, 성백주, 송혜수, 양달석, 오영재, 오우암, 우신출, 유택열, 이득

그중에서도 1950년대 작품인 김남배의 <구두담이>, 1958년 작품인 김원의 <모자상> 그리고 1960년대 작품인 양달석의 <목동>과 1969년 작품인 이석우의 <물장수>등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특색 있는 작품들에 주목하며 부산, 경남지역 미술의 다양한 양상과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볼 수 있는 전시형태로 선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 근대미술의 크고 작은 변화와 흐름을 되짚어보고 각 세대의 염원과 생명의 역동성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지금 시대에 새로이 의미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전시일정

부산미술은 부산미술협회 회원님들과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간입니다. 격월로 월초에 발간되는 부산미술은 회원님들의 귀중한 전시소식을 기다립니다. 발간 전월 15일까지 전시소식을 부산미술협회로 보내주시면 다음달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bfaa2015@hanmail.net : 전시명, 작가명(단체전일 경우 참여 작가명단), 전시기간, 갤러리명, 연락처, 작품 이미지 (저화질 게재 불가/파일 제목 캡션 필수), 전시 주제 또는 작가의 한마디를 담은 1~2줄의 문장]



4.5-9.22
정명선 개인전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지하층 7전시실
전시마당 중천부마당



5.17-9.18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지하층 2,3,4전시실



5.25-2025.2.23
다원예술 2024 [우주열리바이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지하층 MMCA 다원공간



5.3-12.29
전시명
부산현대미술관 유지점수



5.9-7.13
비가여 제이무브먼트
아트스페이스&갤러리



5.10-7.21
아베 개인전 '흐르는'
조은경랑 부산



5.21-9.22
MMCA 가을작품전
1960-1970년대 구상회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3, 4전시실



5.28-7.21
부산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 기획전
원도심, 회상의 색채



5.31-7.5
이상민 The Invisibles展
갤러리01세



6.1-7.10
박석원 개인전 박석원의 예술
세계 | 적외선
데이트갤러리



6.1-9.22
일러스트레이터 키르니 개인전
'일러 바치기'인 부산
동구 문화플랫폼



6.11-7.13
2024 홍지연 초대展 'LOOK -DandyMac'
영도늘이리두층 갤러리01세



7.10-7.15
가은누리 특별전 'insight'



7.24-7.29
구명본 송해수미술상
수상기념展
(7.16-7.21 구명본 제20회
송해수미술상 수상기념展
금련산 갤러리)



6.13-7.7
경계의 교차점-Dual Gate
오브제투드



6.13-7.13
감성인 개인전
'Do not go gentle into that good night'
이르소향



6.14-7.14
이순구展 '꽃, 웃음꽃들'
갤러리01세



6.15-7.13
박진성 초대 개인전 'MASTER'
백화랑

인사아트 부산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인사아트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후원하고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운영하는 전시공간입니다.



6.17-7.5
목정 문운식 초대전 '근원의 꽃 피우다'
이젤갤러리



6.19-7.7
The Ugly Duckling - PEOPLE 展
이르소향



6.21-7.21
지금 우리의 시간
금정문화회관 금성미술관 전관



7.2-7.7
2024 원로작가전
금련산갤러리



7.2-10.27*
서양미술 400년 명화로 읽다
도에서 앤디워홀까지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7.3-7.8
2024 동아대학교 동동문화 창립 75주년
기념 미술작품전
석당미술관



7.9-7.14
이정윤 제23회 오늘의작가상
청년작가상
수상기념展
금련산 갤러리



7.19
서은혜 'Art Forum No Boundaries'
뉴욕 타임스퀘어 빅스크린 비디오아트 전시



7.23-8.4
강선보 회고전 'HYBRID NUDE'
금련산갤러리



8.17-10.20
어울에서보기 2024 부산비엔날레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근현대역사관, 한성1918 등



8.20-8.25
2024 부산수채화협회 [동행전]
금련산갤러리



8.13-8.18
정부안 개인전
금련산갤러리



8.27-9.1
제3회 G-ART 정기전
금련산 갤러리

부산 미술 등록번호 부산남.라00005

- 발행인 : 최장락
- 발행처 : 사부산미술협회
- 편집위원 : 김성현 · 김종원 · 정연은 · 진수아 · 신현정
- 편집기자 : 김은비
- 주 소 : 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2호
- Tel. 051) 632-2400 Fax. 051) 644-4183